

조용필부터 레드벨벳...나홀간 '평양공연' 이 남긴 것



가수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 우리 예술단이 나홀 간의 북한 평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음악감독 윤상을 비롯해 조용필 이 선희 최진희 백지영 윤도현 서현 레

드벨벳 알리 정인 강산에 김광민 등 남측 예술단은 4일 오전 2시 52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3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홀 간의 방북 일정 동안 우리

예술단의 일거수 일투족은 화제의 중심에 섰다. 1일 북한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단독 공연 '봄이 온다'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내외가 참석해 우리 예술단과 친밀

방북 일정 동안 예술단 일거수 일투족 화제 중심 우리가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성공

하게 인사를 나눠 전국민을 놀라게 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예술단을 만나 "남측 인사를 봤다 남측 분들이 레드벨벳과 만났지 안 만났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뵙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일정 내 유일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은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공연에만 참가할 것 같다고 하고 약속해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떨렸"며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남다른 소감을 전하기도.

둘째날인 2일에는 3일 남북합동공연 리허설을 앞둔 우리 예술단이 북한을 만끽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들은 평양 유희관에서 북한 대동강 내외가 참석해 우리 예술단과 친밀

다. 그들의 모습은 취재진을 통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3일 평양 보통강구역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예술인들의 연합무대-우리는 하나에서는 우리 예술단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봉채 공연을 진행했다.

이선희 '에게', 백지영 '뜻밖은 것처럼', 최진희 '뒤늦은 후회', 조용필 '친구여', '보너리' 등 북한에서 인기 많은 노래는 물론 레드벨벳 '빨간 맛', 강산에 '라구요' 등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무대도 공개됐다.

최진희 이선희 백지영 서현 정인 알리 레드벨벳은 북한 여가수들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열창했고, 공연 마지막에는 남북 출연진이 다함께 '우리의 소원', '다시 만남 시다'를 불러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번 나홀간의 방북 일정을 통해 남북은 우리가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성공했다. 2006년 조용필 평양 단독 콘서트 이후 13년 만의 평양 공연을 통해 향후 문화적 교류 역시 다양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 측과 북측은 이번 공연을 성료하며, '봄이 온다'에 이어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한층 완화된 남북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일과 3일 진행된 공연은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북한 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평양 공연', '레드벨벳' 등이 뜨면서 전국민적인 화제물이었던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리 예술단의 공연은 5일 밤 MBC, KBS, 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약 두 시간에 걸쳐 동시간대 방송될 예정이다.

'머니백', 배우도 재밌어하는 영화



배우도 재밌어하는 영화 '머니백'이 베일을 벗었다. 영화 '머니백' (감독 허준형)이 4월 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시사회를 갖고 베일을 벗었다. 이날 주연 김무열, 박희순, 이경영, 진광렬, 임원희, 오정세, 김민교와 허준형 감독이 참석했다.

'머니백'은 이진 늬이 다 갖는 세상, 하나의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일곱 명이 쫓고 달리고 쫓기는 추격전을 다룬 작품이다. 충무로를 주름잡는 배우 김무열, 박희순, 이경영, 진광렬, 임원희, 오정세, 김민교까지 총합해 꼬이고 꼬인, 엮이고 엮인 7명의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날 배우들은 입을 모아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출연을 결정한 영화"라 말했다. 또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게 아닌, 일곱 배우 모두가 주인공인 점을 영화의 관할 포인트로 꼽았다.

특히 어머니의 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인 김무열은 "이 영화는 단순한 코미디 영

화라 생각 안 했다. 상황들이 워낙 처절해서 개인의 사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상황마다 캐릭터가 닳친 여러 일들에 대해 진실하게 다가갔다 웃기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촬영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이경영은 영화를 두고 "영품 시계 태엽처럼 오밀조밀 정확하고 유쾌한 영화였다"고 자랑했다. 또 "킬러 박 역할은 제 필모그래피 중 유일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이다. 천진난만하게 연기하려고 애썼다. 개구쟁이처럼, 하지만 속물은 아니게 보이려 노력했다"고 밝혀 예비 관객의 기대감을 자아냈다.

임원희 역시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제 연기보다 다른 캐릭터를 쫓아가기 바랐다"며 감상을 전했다. 박배기사 역할을 맡은 오정세는 극중 진상 손님으로부터 간장계장을 뒤집어쓰는 극한 연기를 해야 했다. 오정세는 "진짜 간장계장이었다.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로 배달업도 10년 한 적이 있어서 경험을 녹여냈다"고 덧붙였다.

영화보다 드라마에서 주로 활약했던 진광렬은 이번 영화를 위해 살을 찌우는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난 신인 영화배우다"고 자신을 소개한 진광렬은 "그간 영화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진광렬이라는 배우는 많은 팬트럼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깨닫고 싶어했다. 또 "탐욕스러운 정치인을 표현하기 위해 몸무게를 6kg 증량했다"는 노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머니백'은 4월 12일 개봉한다.

'프로듀스48', 6월 첫방송 확정

'프로듀스48'의 첫 방송일이 6월로 최종 결정됐다. 제작진은 6월 첫 방송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Mnet '프로듀스48' (이하 '프듀48') 제작진은 최근 첫 방송 일자를 6월 중으로 결정했다. 현재 6월 방송을 목표로 세부 편성일을 조율 중이다.

'프듀48'은 올 초 5월 첫방송을 목표로 잡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첫방송 일자를 조정하게 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5월 첫 방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

인됐다. '프듀48'은 4월 중 경기도 모처에서 첫 촬영을 진행한다. 합숙생활의 시작이다. '프듀48' 측은 약 1000명에 가까운 지원자를 받은 뒤 3차 오디션 끝에 최근 최종 출연 연습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듀48'은 한일 합작 걸그룹을 론칭하는 포맷으로 한국 연습생과 일본 AKB48 연습생들이 함께 서바이벌을 펼쳐나간다. 앞서 '프듀'로 데뷔했던 그룹 아이오아이도 다시 분체 '프듀48'에 완전체 출연을 논의 중이다. 아이오아이를 넘는



한일 걸그룹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프듀' 시리즈를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안준영 PD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더한다. 케이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화제성과 5%가 넘는 시청률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어 '프듀48'의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

다만 '프듀48'의 경우, 겸업 가능한 AKB48 연습생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활동 조건은 이전 시즌과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겸업 가능,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Mnet은 2016년 '프로듀스 101' 시즌1을 통해 아이오아이, 지난해 시즌2를 통해 워너원을 탄생시켰다. 과연 이들이 아이오아이, 워너원을 넘어서는 과격력의 한일 글로벌 걸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불후의 명곡' 조용필 특집, 역대급 라인업 공개



오는 4월 21일, 4월 28일, 5월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방송되는 '불후의 명곡' '조용필 50주년 기획 3부작'의 역대급 라인업이 드디어 공개됐다.

최근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지난 2011년 첫 방송 이후 지난 8년간 가요계 한 획을 그은 조용필을 전설로 모시기 위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낸 결과 조용필의 화답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특히 조용필은 음악 인생 50년 동안 사랑해주신 국민과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불후의 명곡' 출연을 결심했고, 제작진 역시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구성으로 녹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후의 명곡'은 '조용필 50주년 기획'을 위해 오는 4월 21일, 28일, 5월 5일에 걸쳐, 사상 처음으로 3주간 특별 편성했으며,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리스트 16팀이 총 출동한 역대급 라인업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출연자로는 대한민국 록 밴드의 두 축인 '시나위'와 '부활'을 모두 거친 로커 김중서, 독보적인 카리스마 로커 김경호, 한국의 R&B 여제 박정현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비디, 김태우, 린, 하동균, 환희, 대비치, 한동근 등이 총 출동한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 최다 우승자 정동하, 뮤지컬 스타 부부 김소현과 손준호, 독보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알리, 개성만점 인디밴드

장미여관 그리고 최근 '불후의 명곡' 최고점 44.9%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뮤지컬 배우 민우혁까지 '불후의 명곡'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가수들 역시 명곡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대표 실력과 아이돌 세븐틴까지, 주목받는 가요계 신인들도 출연을 확정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가요계 선두배들이 총 출동해 조용필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들을 펼친다.

한편,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조용필 50주년 기획 3부작'에서는 16팀의 무대와 함께 가왕 조용필의 50년 가요 역사와 수많은 명곡들을 재조명하고 숨겨진 일화를 공개하며 그동안 조용필을 기다려온 국내외 많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KBS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조용필 50주년 기획'은 오는 9일 녹화, 4월 21일, 28일, 5월 5일 3주간에 걸쳐 방송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음력 2월 20일)



▶**쥐** 2, 9, 12월생 정신적 수양에 더욱 신경 써야 건강을 유지하겠다. 뒷다리에 있다고 우월감으로 아래사람을 무시하다 봉변을 당하겠다.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라.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격으로 그, 바, 등 성씨 순발력과 재치가 있으면 좋겠다.



▶**곰** 그, 자, 천 성씨 지나치게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시비로 인해 관계수가 우려된다. 감정을 억제하라. 2, 5, 8월생 계획성 있게 삶을 영위하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인정에 끌려 마음이 약하다. 남쪽과 서쪽에 귀인이 있다.



▶**고양이** 이리저리 옮기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변동하지 말라. 판매직 종사자는 주인이 능력을 인정해주니 늦은 시간 기본 좋아 귀가할 듯. 믿었던 애인이 그대를 외면한다 해서 그를 원망하지 말고 내 처신을 한 번 생각하라.



▶**토끼**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계획을 세우라. 단, 동업이나 음식업은 울며 겨자 먹는 격이다. 바, 사, 오, 자 성씨 가정애 소홀하다 신병이나 가솔자가 생길까 염려된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개, 양, 소피와 의논하면 좋은 대책이 생긴다.



▶**원숭이** 등, 북쪽에 길함이 있으나 채우 관계로 원망 소리 들릴 듯. 급하다고 바늘머리에 실을 매어 쓰지 말라.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직장인은 도장, 사인 등으로 시비와 구설이 뒤따라니 조심해야 한다.



▶**코끼리** 생각과 달리 나이가 아주 적거나 많은 사람이 은근히 접근하는 격이니 처신을 올바로 하라. 소, 용, 개띠를 조심해야 한다. 그, 나, 오, 자 성씨는 언행을 확실히 할 것. 2, 8, 11월생 동쪽과 서쪽에 길하다. 바, 오, 사 성씨는 건강에 유의하라.



▶**말** 즐거움은 잠시뿐이다. 불운 행위는 영원히 나를 괴롭힌다. 1, 2, 3, 8월생 바, 바, 오 성씨 산 넘어 산이 있으나 한층 더 용기 내고, 지혜롭게 현재를 극복하면 대성한다. 여자 그, 그, 바, 오 성씨는 애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개** 오, 자, 천 성씨 실력과 경험이 없어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은 좋다. 그러나 아직 용기가 부족하다. 쥐, 말, 닭띠 영향이 크니 도움이 필요할 듯. 상대방에게 기본 상하는 말을 듣더라도 얼굴 붉히지 말고 여유 있게 대하라. 빨간색이 길하다.



▶**돼지** 사, 오, 자, 천 성씨는 쥐, 범, 용, 돼지띠에게 관심을 보이므로 가정에 더욱 윤택함이 있겠다. 2, 3, 6, 9월생 지출이 심하다. 자신을 너무 믿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꼴이 된다.



▶**새** 생각과 몸이 따로 놀게 되니 답답할 듯. 그, 오, 자, 등 성씨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사할 수 있으나 정신이 복잡해질 듯. 3, 5, 11월생은 보증을 서거나 금전거래를 하면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여자는 언하, 남자는 언상이 귀인이 될 듯.



▶**슴슴** 지금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쥐, 토끼, 용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다. 그, 바, 오, 자 성씨는 빠른수록 좋으니 머리를 쓰라. 북, 서쪽 여인이 귀인이니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범, 범, 돼지띠를 피하라. 노란색이 길하다.



▶**곰** 현재는 힘겹겠지만, 끈기만 있다면 작은 자본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니 2, 3, 5월생 전진하라.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애간장 타는 격이다. 그, 자, 등 성씨의 말은 황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라.